

News

금융위원 5명, 한 목소리로 "금리 조정 시작해야"... 8월 인상에 힘 실리나

조선비즈

코로나19 확산세에 기준 금리 동결했으나, 일부 의원들 가까운 시일 내 금리 인상 필요하다는 매파적 입장 표명
가계부채 증가세와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

대환대출 서비스 10월 가능할까..."모든 은행 참여는 시간 걸려"

뉴스1

금융위, 오는 10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 가동 계획
금리 비교 플랫폼과 금융사 연계에 시간 소요... 모든 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은 오래 걸려

디지털 풍랑 속 칼바람... 은행원이 사라진다

아시아경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지점폐쇄와 비대면금융 활성화 등 변화... 올해 상반기에만 5대 시중은행 2,628명 퇴사
희망퇴직 증가세... 전통 은행원 대신 디지털 인재를 가려 뽑는 핀셋 채용 진행 중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확대...올해 9조 6,000억원

한국경제

금융위원회,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액을 대폭 확대해 올해 총 9조 6,000억원 공급 발표
코로나19와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 및 저소득자 금융 접근성 떨어지는 것 최소화 목적

보험사, 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 완화한다

뉴시스

금융당국, 실손보험 가입 심사기준 강화한 일부 보험사 사례에 제동
보험금 수령 이력은 보조 수단으로 활용...보험 청약서 기재 내용으로 가입여부 결정에 합의

아직 몇 발 남았다'... IPO슈퍼워크에 70조 예약금 출렁

머니투데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 대어 공모청약과 십여개 기업들의 청약일정으로 이어진 영향 때문
IPO 슈퍼워크 내내, 청약일 급증, 청약마감에 급감, 증거금환불일에 급증 등의 현상 반복될 것으로 보임

'비대면시대' 법인보험대리점도 디지털로 변신

서울파이낸스

보험업계, 디지털 법인보험대리점(GA) 설립 가속화... 성공은 설계사 확보와 고객 데이터 활용에 달려...
보험사들, 디지털GA 설립 및 채널 전략 두고 고심 중

ELS 숙려제, 운용수익 타격..."증권사 실적 영향 크지 않아"

EBN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과 증시 상승세 둔화로 2분기 ELS 발행물량 -10.6% QoQ 감소
ELS 발행 감소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주식운용 부문에서 선방하며 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